연구논문 ▌『항도부산』 제40호, 2020. 8, 373~401 DOI : https://doi.org/10.19169/hd.2020.8.40.373

부산 기장군 '용천산' 지명 변천 연구

이 근 열*

| 목 차 |

Ⅰ. 들어가기
Ⅱ. 용천산의 지명 변천
Ⅲ. 고지도의 용천산 변천
Ⅳ.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부산 기장 '용천산'의 한자 표기가 다른 것에 주목하여 '용천산'의 지명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용천산'의 지명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기장의 고지도, 기장군읍지, 일제 강점기의 자료, 해방 후 지도 제작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용천산'은 원래 '용초산'에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용천산'의 고유 지명인 '소심산, 솟음산'이란 지명이 '용초산'의 '가파르게 솟아 오른 산'의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둘째, '용초산'에서 '용천산'으로의 지명 변화는 기장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날음재' 즉, '비음현(飛音峴)'의 지명 표기와 관련이 있다. 즉, 지도 제작자가 '비음현'의 한자를 오해하여 '용음현'이나 '용지현' 등으로 바꾸어 표기하자 이것이 원래 지명의 혼란을 야기해 '용천봉'으로 바뀐 것이다.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의교수 / gonyal@pusan.ac.kr

셋째, '용천봉'은 ≪여재촬요≫에서 '비음현' 위치에서 처음 확인이 되고, 1914년 ≪경상남도동래군지지조서≫에서 '용천산(湧天山)'으로 바뀌어 나타나며, 이것이 그대로 1957년 ≪지방별지명조사철≫에 그대로 이어져 표기되고 있다.

넷째, 현재의 '용천산(湧天山)'은 원래 지명인 '용초산(聳峭山)'이 일제 강점기에 바뀐 지명이다.

핵심어: 부산 지명, 기장 지명, 용초산, 용천산, 날음재, 비음현, 용지현, 용음현, 일제 지명, 기장 고지도, 지방별지명조사철, 경상남도 동래군지지조서

Ⅰ. 들어가기

산은 오랜 세월 각 지역의 신앙의 중심이며,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지표물이다. 특히 고을의 지리적 위치는 안산, 진산 등의 산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고을의 천신, 기우 등의 중요한 제례가 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생활이 산 이름에 그대로 반영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산명은 일단 명명되고 표기되면 잘 바뀌지 않고 고정되는 지명의 보수성을 가진다. 그러나 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도 제작자의 표기 오류, 지명 채록자의 오류 등의 외부적 요인과 지역어의 변화, 음운의 변천, 표기법 등의 내부적 요인에 따라 원래의 산명이 바뀌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원래 고유어로 명명되었던 지명이 차자 표기된 한자에 견인되어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기 한다.

예를 들어 기장군의 '달음산'의 경우, '높은 산'이란 뜻의 고유지명을 차음 표기한 '達音山'과 차훈 표기한 '鷲峯山'을 '달이 뜨는 산'이란 뜻의 '월음산(月陰山)'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바위가 독수리처럼 굽어보고 있는 산'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 이는 고유 지명인 '달음산'의 '달'이

'높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이 '취봉'의 '鷲[수리]'의 '높음'과 연결되어 있지만 한자 표기에 이끌려 원 지명과 다른 해석을 낳게 된다.[2] 또한 이근열(2018)[3]에서는 기장의 진산인 '탄산(炭山)'은 '검정산' 즉, '큰산'이란 의미로 명명되었는데, 기장현의 주산으로 16세기 ≪동람도≫에 처음 표기되었다가 1870년 ≪기장읍지≫에서 '수산(繡山)'이란 지명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04년의 ≪기장군읍지≫에서 '수령(繡嶺)'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후 산명이 사라졌다가 1957년경에 만들어진 『지방별지명조사철』에 '주산(主山)'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이것이 오늘날의 지도명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후 1980년 『한국지명총람』, 2001년의 『부산지명총람』에서 '주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가 2001년의 기장 군지에서 다시 '수령산(繡嶺山)'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향토문화전자대전≫에 그대로 '수령산'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성산(城山)'의 경우도 18세기 중엽까지 성산으로 나타나지만 이후 19세기 중엽부터 '산성(山城)'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후 '형산(衡山)'으로도 나타나고 1910년도에는 '성산(筬山)'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

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는 '월음산(月陰山)'은 '달이 뜨는 산', '취봉'에 대해서는 '정상에 거대한 바위가 있어 독수리[鷲]처럼 굽어보는 산'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부산지명총람』(8:11)의 해석과 동일하다.

2) 이근열, 「부산 기장군 달음산 연원과 변천 연구」, 『우리말 연구』 20, 2020, 43~46쪽에 따르면 여러 지명에서 '취봉'의 동일지명이 '큰 산'으로 불리는 것을 근거로 '수리봉'이 큰 산임을 밝히고 있으며, 달음산(達音山)은 이두식 표기로 '달'이 '높음, 산, 큼'의 의미를 가진 것이고, '음(音)'은 고유어 말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고 '높은산'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명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기장산으로 불린 '달음산'은 '높은 산'이란 뜻의 고유 지명으로 1750년 이전부터 '達音山'이란 고유 지명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달음산의 주봉의 이름이었던 '취봉'이 산이름을 대표하여 '취봉산'으로 부르면서 '취봉산'을 달음산을 대표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후 낮은 봉우리를 '달음산'으로 명명하여 '취봉산'과 '달음산'이 같이 쓰이게 되다가 후대에 주봉이었던 '취봉산'이 '주봉(主峯)'으로 표기되고 낮은 봉인 '달음산'이 '월음산(月陰山)'으로 표기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며 이때 '주봉'이 원래의 이름인 '달음산'으로 바뀌게 되고 낮은 봉은 '월음산'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3) 이근열, 「부산 기장 읍성 주변의 산명 변화 연구」, 『지명학』 29, 149~176쪽.

히고 있다. 그 뒤 1957년 경에 '산성(山城)'으로 변경되어 지도에 나타나다가 근래에 들어 '성산(筬山)'으로 바뀌어 진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산명의 경우 특정한 시기에 원래의 지명과는 다른 지명으로 바뀐 것이 확인이 된다.[4)]

부산의 산이름은 김기혁(2005)[5)]의 '영남권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연구'에서 부산광역시 산지 지명을 고지도와 여러 지명 자료를 비교해 그 변화를 살펴본 것이 있지만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빠져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명 중에서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용천산'의 산명의 변화를 확인하고 지명 변화의 시기와 원인을 밝히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기장의 산명 확인을 위한 일차적 자료는 고지도 지명인데, 이는 김기혁(2008)[6)]의 『부산고지도』를 이용하여 확인할 것이다. 고지명 자료는 대부분 18세기 19세기 자료이기 때문에 이전의 자료는 순조32년(1832)에 간행된 『경상도읍지』의 기장현 지명, 고종8년(1871)에 간행된 『영남읍지』의 기장현 지명, 광무3년(1899)에 간행된 『기장군읍지』의 기장군 지명 등을 이용하여 산명의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

이후 근대 기장 지명의 자료는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 1904년

4) 이근열, 앞의 논문, 2018, 152~160쪽에 따르면 '성산(城山)'은 1750년에 간행된 ≪해동지도≫에서 '탄산'과 함께 처음 나타나고 18세기 중엽의 ≪여지도≫에서 '성산'으로 나타나고 19세기 중엽의 ≪지도≫에서 '산성(山城)'으로 나타나며, 1870년 『기장읍지』는 '형산(衡山)'이 나타나서 1872년 ≪지방지도≫에서까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후 1910년에 간행된 『조선지지자료』에서 '성산(筬山)'으로 표기가 변화하고 1957년경에 만들어진 『지방별지명조사철』에서 '산성(山城)'으로 산명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산성'은 1980년에 만들어진 『한국지명총람』에서 그대로 '산성'으로 나타나며, 2001년의 『기장군지』에서 다시 '성산(筬山)'으로 바뀌어 나타나며 이것이 『향토문화전자대전』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 김기혁, 『영남권 일본식 지명의 정비 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2005, 95~98쪽.

6) 김기혁, 『부산 고지도』, 부산광역시, 2008.

에 간행된『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일제 강점기 자료를 함께 확인할 것이다. 이 시기의 변화는 일제 강점기 지명 변화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1910년에 간행된『조선지지자료』, 1912년에 간행한『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7], 1914년에 간행한『경상남도 지지조서』, 1917년에 간행한『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8]과 1937년 문기주에 의해 간행된『동래군지』를 살펴볼 것이다.[9] 이와 함께 일제 지형도인 오만분지일『조선지형도』(1912~1919)도와 해방 후 측량자료인『경상남도동래군지명조사철』(1958)[10]을 함께 확인하여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나『조선지형도』의 기장부분은 훼손되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경상남도동래군지명조사철』(1958)만을 대상으로 지명을 검토할 것이다.

7)『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은 1912년 1월 1일의 한국의 도부군면(道府郡面) 및 동리의 지명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농촌 지역 면의 하부 단위를 동(洞)과 리(里)로 통일하여 개편하기 이전의 자료를 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8) 이 자료는 1914년에 조선총독부가 단행한 군면리동을 통폐합한 행정구역 개편 결과를 각 도별로 수록한 것으로 1917년 4월에 간행되었다. 오치 다다시치가『조선총독부 관보』와『조선휘보』,『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 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 관계 당국자의 회답서, 각종 지도와 기타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9) 여기에 실린 동리는 삼성리(三聖里), 이천리(伊川里), 용천리(龍川里), 청광리(淸光里), 화전리(花田里), 횡계리(橫溪里), 동백리(冬柏里), 신평리(新平里), 칠암리(七岩里), 문중리(文中里), 문동리(文東里), 원리(院里), 학리(鶴里) 등 13개이다.

10) 해방 후에 1947년~1951년 미군 측지부대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기초로 하고 일제 5만분의 1의 지형도와 2만 5천분의 1의 시가도를 편집하여 새로운 5만분의 1의 지도를 새로 만들었다. 이 지형도는 실제 지명이 누락되거나 오표기 된 것이 많아 1957년 국방부 산하 기관인 지리연구소에서 현대식 지형도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 이 지형도를 다시 수정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가『지방별지명조사철』이다.『지방별 지명조사철』에는 수정 대상의 원본 지도(단기4291년 1958년 제작본)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지도의 지명의 오류를 수정하고 누락된 지명을 부가하여 신지도 제작의 기초 자료로 삼았는데, 이 자료가 지도에 표기되어 현재의 지명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지형도의 저본이다.

Ⅱ. 용천산의 지명 변천

용천산은 545m의 높이의 산으로 '소심산', '솟음산'으로 불리는 산이다. 이 산은 기장군 정관읍과 양산시 매곡동에 걸쳐 있어서 양산의 지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장군의 지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표기되는 한자 지명은 다르게 나타난다. <자료 1>의 양산 지명은 '龍天山'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자료 2>의 기장군 지명에서는 '湧川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용천산

[龍天山]

요약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산.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높이 545m

높이 545m이다. 소심산이라고도 한다. 경남 양산시 매곡동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에 걸쳐 있다. 산행은 월평에서 시작하여 정상을 넘은 뒤 동부산골프장이 있는 허허령을 우회하여 시명산 방향 장안사로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다. 산행 시간은 6시간 정도 걸린다. 산행 시작점이나 끝지점 모두 부산 시내에서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북서쪽에 가지산도립공원 내원사지구가 있다.

<자료 1>『두산백과』'용천산(龍天山)'

두산백과

기장군

[Gijang-gun , 機張郡]

요약 부산광역시의 북동쪽에 있는 군.

위치 부산광역시의 북동쪽에 있는 군 지도

1995년 3월 양산군에서 분리 독립하여 신설된 군으로, 관할구역은 기장읍·장안읍·정관읍(鼎冠邑)·철마면(鐵馬面)·일광면(日光面)의 3읍 2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으로 동해에, 서쪽으로 경상남도 양산시·금정구에, 남쪽으로 해운대구에, 북쪽으로 울산광역시·양산시에 접한다.

중·북부에 산지가 많고, 대표적인 산으로는 용천산(湧川山:543m)·달음산(588m)·백운산(白雲山:520m)·천마산(天馬山:400)·철마산(鐵馬山:605m) 등이 있다. 평야는 이들 산지 사이를 흐르는 일광천(日光川)·좌광천(佐光川)·수영강(水營江) 주변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좁고 긴 평야가 전개된다. 서부의 경계를 이루는 수영강은 용천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수영 부근에서 온천천(溫泉川)과 합류하여 수영만(水營灣)으로 흘러든다.

<자료 2>『두산백과』기장군 '용천산(湧川山)'

또, <자료 3>에서 보듯『부산지명총람』에서는 기장군의 '용천산'을 '湧天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자	湧天山
영어의미역	Yongcheonsan Mountain
이칭/별칭	솟음산, 소심산
분야	지리/자연 지리
유형	지명/자연 지명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명칭 유래]

용천산(湧天山)은 솟음산, 소심산이라고도 한다. 용천(湧天)은 한자 뜻 그대로 '하늘로 치솟은 산'이란 뜻으로 세 부자에 얽힌 전설과 관련되어 있다. 옛날에 두명리는 넓은 평야가 있고 물이 좋아 농사가 잘 되는 부자 고을이었다. 그 가운데도 큰 부자가 세 사람 있었는데, 이 세 부자는 머슴과 종을 많이 거느리고 넓은 땅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고 헐뜯었다. 그러자 머슴과 종들까지 세 패로 갈라져 싸웠다. 그러던 어느 날 땅 밑에서 높은 산이 치솟고, 이 산이 누런 금덩어리로 온통 덮였다. 이에 세 부자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금덩어리를 오으느라 땅을 마구 파헤쳐서 황금산은 벌집처럼 구덩이가 파여 흉하게 변했다. 그러자 황금빛이 사라지고 황금이 모두 돌멩이로 변하였다고 한다.

<자료 3>『부산역사문화대전』'용천산(湧天山)'

이처럼 '용천산'의 한자로 표기의 혼란은 지명 연원의 해석에 어려움을 야기하며, 왜곡된 정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고문헌과 고지도에 나타난 '용천산'의 표기를 시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기장군지(機張郡誌)』(2001:상67~68)에 따르면 기장군의 산명으로 수령산, 철마산, 달음산, 용천산, 거문산, 석은덤산, 백운산, 망월산, 구곡산, 문래봉, 앵림산, 삼각산, 치마산, 함박산, 운봉산, 계좌산, 천마산, 일광산, 성산, 아홉산, 불광산, 감딤산, 양달산, 봉대산(남산), 곽걸산, 박모산, 연화봉 등 27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네 번째 산으로 '용천산'이 제시되어 있다.

(1) 용천(湧天, 聳天)산 (544.6m)
용천산은 한자 뜻 그대로 하늘로 치솟은 산이란 뜻이다. 이래서 주민들이 이 산을 솟음산, 소심산이라 부른다. 이 산은 정관면 두명리 배산으로 경남 양산군 웅상읍과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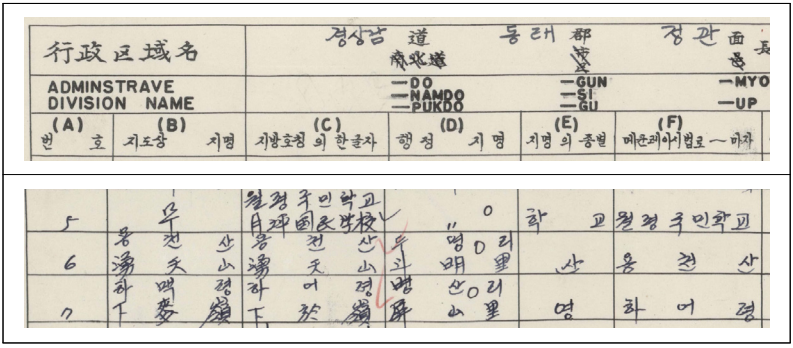
(1)에서 보듯 용천산의 한자를 '湧天'과 '聳天'로 제시하고 있어서 더욱 그 연원의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2)에서 보듯『구기장군

향토지』(1992:228)에는 '용천산'이 '湧天山'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 (2) 용천산(湧川山) 솟음산, 소심산
> 장안읍 반룡리에 있는 산이다.

(2)에서 보듯 용천산이 장안읍 반룡리의 산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솟음산, 소심산'의 고유지명을 함께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정관면 두명리의 용천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 후 1957년 미국 극동 사령부의 지원 아래 국방부 지리연구소에서 한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만든『지방별지명조사철』에 '용천산'이 '湧天山'으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표 4>에서 보듯 경상남도 동래군 정관면의 산의 이름으로 '용천산'이 이미 지도에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전 시기의 지도의 지명을 그대로 쓸 것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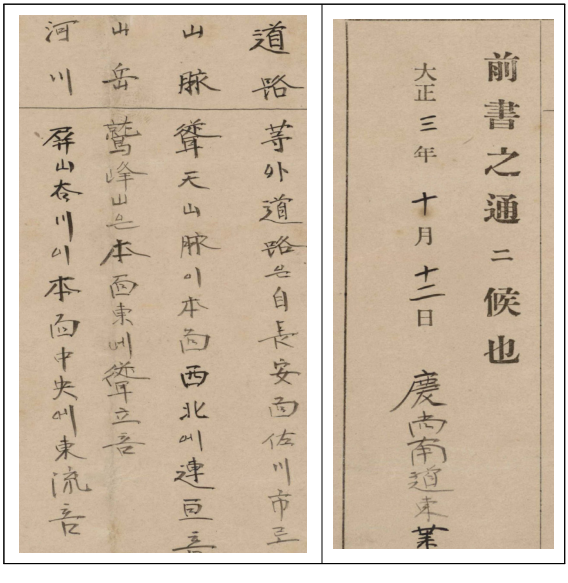
行政区域名		경상남 道	동래 郡	정관 面	
ADMINSTRAVE DIVISION NAME		—DO —NAMDO —PUKDO	—GUN —SI —GU	—MYO —UP	
(A) 번호	(B) 지도상 지명	(C) 지방호칭의 한글자	(D) 행정 지명	(E) 지명의 종별	(F) 메큔레아시법로 ~ 마자
5	무	월평국민학교 月坪国民学校	〃 0	학 교	월평국민학교
6	용 천 산 湧 천 산	용 천 산 湧 천 산	두 명 D 리 明 里	산	용 천 산
7	하 맥 평 下 麥 嶺	하 어 평 下 於 嶺	병 산 0 리 屏 山 里	영	하 어 평

<자료 4>『지방별지명조사철』의 용천산

해방 이전에 '용천산(湧天山)'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 강점기의 지명을 검토해야 이러한 한자 표기의 연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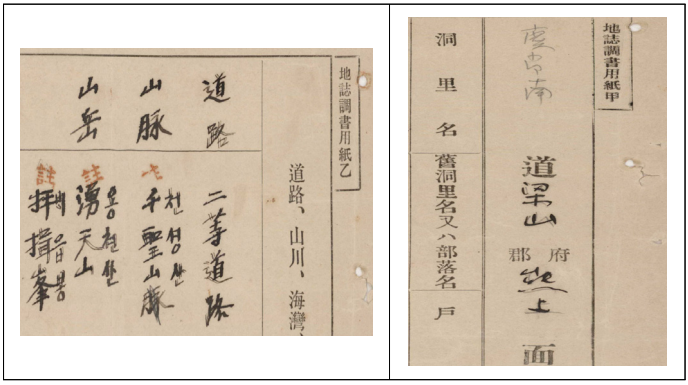
1910년 전후에 만들어진 『조선지지자료』의 경상남도 기장군 자료에는 읍내면의 성산(筬山), 남산(南山), 동면의 일광산(日光山), 거무산(巨勿山), 남면의 앵림산(鸎林山), 상서면의 거무산(巨霧山), 운봉산(雲峯山), 하서면에 백운산(白雲山), 상북면에 삼각산(三角山), 중북면과 하북면에 취봉산(鷲峯山)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용천산’은 누락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 발행한 『지지조서』(1914)의 경상남도 자료 중에서 기장군과 양산군 웅상면의 지명 자료에 ‘용천산’이 나타난다. <자료 5>에서 보듯 기장현의 산맥으로 ‘용천산(聳天山)’이 등장하고 있는데, ‘용’자를 ‘솟을 용(聳)’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6>에서 보듯 양산군 웅상면의 자료에서는 ‘용천산(湧天山)’으로 나타나는데, ‘용’자를 ‘샘솟을 용(湧)’자로 표기하고 있다.


前書之通ニ候也
大正三年 十月 十二日
慶尚南道知事

道路 等外道路ハ自長安面佐川市ニ
山脈 聳天山脈ハ本面西北ニ連亘シ
山岳 鷲峰山ハ本面東ニ聳立シ
河川 屏山谷川ハ本面中央ニ東流シ

<자료 5> 경상남도 『지지조서』 ‘용천산(聳天山)’



<자료 6> 경상남도『지지조서』양산군 웅상면

이를 자료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용천산'의 지명 변화

문헌자료	지명	연대
호구총수	없음	1789
기장군읍지	없음	1871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없음	1904
조선지지자료	없음	1910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없음	1912
경상남도 동래군 지지조서	湧天山	1914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없음	1917
동래군지	없음	1937
대한민국 행정구역명람	없음	1956
지방별지명조사철	湧天山	1957
구기장군향토지	聳川山	1992
두산백과	龍天山,湧川山	1996
기장군지	湧天山,聳天山	2001
부산지명총람	湧天山	2001
부산역사문화대전	湧天山	2014

<표 1>에서 보듯 '湧天山'은 일제 강점기에 표기된 『경상남도 동래군 지지조서』의 지명표기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자료인 기장 고지도 자료에서 '용천산'과 관련한 지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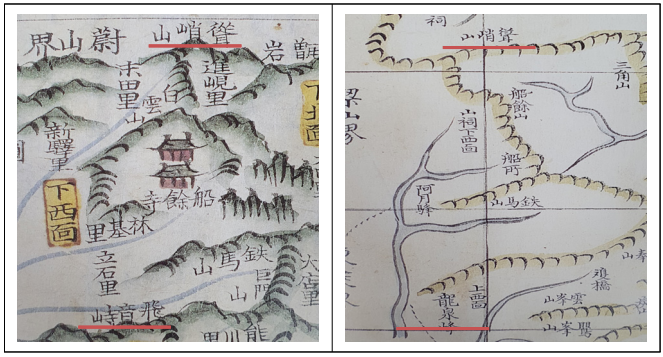
Ⅲ. 고지도의 용천산 변천

1611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장현의 산천 조에는 탄산(炭山), 남산(南山)만 나타나 있고, 신증 산천으로 운봉산(雲峯山)과 백운산(白雲山)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용천산'이란 산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871년과 1899년에 기장군읍지(機張郡邑誌)에는 탄산(炭山), 남산(南山), 운봉산(雲峯山), 백운산(白雲山), 취봉산(鷲峯山), 불광산(佛光山), 앵림산(鶯林山) 등만 나타나 있으며 용천산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처럼 기장의 고지도와 읍지에는 '용천산'으로 나타나는 지명은 없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한 지명에서 '용천산'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기장의 고지도에 나타나는 지명 중에서 '용천산'과 유사한 지명은 '용초산(聳峭山)'과 '용천봉(龍泉峯)'이다. '용초산'의 한자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용(聳)'이 '솟다'는 뜻이고 '초(峭)'가 '가파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용초산'의 자의(字意)로는 '가파르게 솟아오른 산'이란 뜻이 된다. 이는 용천산의 다른 이름인 '솟음산, 소심산'과 동일한 의미이므로 '용초산(聳峭山)'에서 '용천산'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으로 기장 고지도에서 '용초산'의 변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7>에서 보듯 19세기 초엽에 만든 ≪각읍지도≫에서는 울산과

경계 지역에 ‘용초산(聳峭山)’이 나타나고 아래쪽에 철마산 아래로 ‘비음치(飛音峙)’가 나타나지만, 18세기 말의 ≪해동여지도≫에서는 위쪽에 나타나는 ‘용초산(聳峭山)’과 함께 철마산 아래로 ‘용천봉(龍泉峰)’이 나타난다. 이는 ‘비음치’와 ‘용천봉’이 지도상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자료 8]에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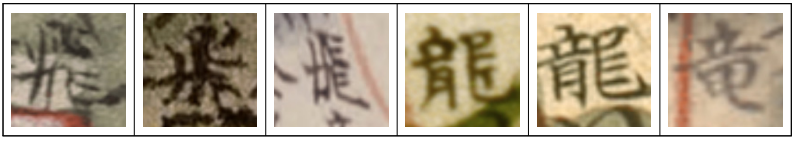


<자료 7> ≪각읍지도≫ 용초산과 비음치, ≪해동여지도≫ 용초산과 용천봉

<자료 8> ≪지승≫ ‘비음현’과 ≪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 ‘용음현’

<자료 8>에서 1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지승≫의 비음현의 ‘비(飛)’자가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아 ‘용(龍)’자의 약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여지도≫ 국립중앙도서관본에서는 ‘비음현(飛音峴)’이 ‘용음현(龍音峴)’으로 바뀌어 표기되어 나타난다.

즉, ‘비음현(飛音峴)’의 ‘비(飛)’자가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아서 다른 지도 제작자가 용(龍)자의 약자로 오해하고 이를 용(龍)으로 표기하여 ‘비음현’이 ‘용음현’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러한 기장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비(飛)’에서 ‘용(龍)’으로의 변화를 보이면 <자료 9>와 같다. 이러한 지명 표기의 변화는 기장의 지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지도 제작자가 원본의 지도를 그대로 모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요인이 지명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자료 9> 기장 고지도 비(飛)에서 용(龍)으로의 변화

또한, ‘비음현(飛音峴)’에서 변화한 ‘용음현(龍音峴)’은 ‘용지현(龍旨峴)’으로도 변화하여 나타나는데, 이 역시 ‘음(音)’자를 ‘지(旨)’자로 잘못 이해하고 옮긴 것에서 기인한다. <자료 10>의 19세기 초엽의 ≪팔도지도≫에서는 ‘음(音)’을 ‘지(旨)’로 옮겨 ‘용지현(龍旨峴)’으로 나타나고 <자료 11>처럼 19세기 중엽의 ≪해동지도≫에서는 자형의 형태가 다른 지명까지 나타난다. ‘음(音)’에서 변한 ‘지(旨)’는 <자료 12>처럼 유사한 시기에 만들어진 ≪여지도≫에서는 ‘지(脂)’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자료 10> 팔도지도
(奎 10331)

<자료 11> 해동지도
(古470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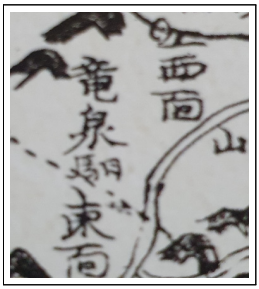
<자료 12> 여지도
(古4709-37)

이러한 '음'의 표기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 <자료 13>과 같다.

<자료 13> 기장 고지도 음(音)에서 지(旨)로의 변화

<자료 14> ≪지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15> 팔도지도
(古4709-23)



<자료 16> 조선도 (오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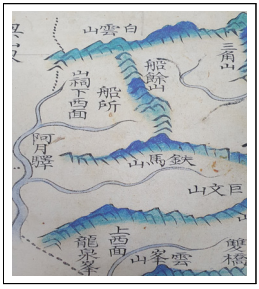
이러한 한자의 이표기는 지도에 따라 전혀 다른 지명으로 바뀌는데, <자료 14>에서 보듯 19세기 중엽의 ≪지도≫(중앙도서관본)에서 ‘암(岩)’으로도 변화한다.

‘용음현(龍音峴), 용지현(龍旨峴)’으로 변한 지명은 <자료 15>처럼 ‘용현(龍峴)’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자료16]처럼 ‘용천(龍泉)’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부류칭의 누락은 원래의 고개였던 ‘비음현’의 지리적 위치를 혼란하게 하고 새로운 부류칭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고개로 이름이던 ‘비음현, 비음치’가 산이름인 ‘봉(峯)’으로 변화되어 <자료 17>, <자료 18, 19>처럼 18세기 중엽의 ≪조선지도≫, ≪동국지도3≫에서 ‘용천봉’으로까지 변화하여 나타난다.

<자료 17> ≪조선지도≫
奎16030

<자료 18> ≪동국지도3≫
국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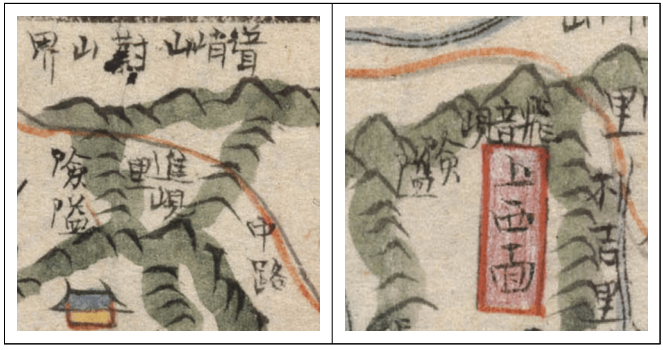


<자료 19> ≪동국지도3≫
용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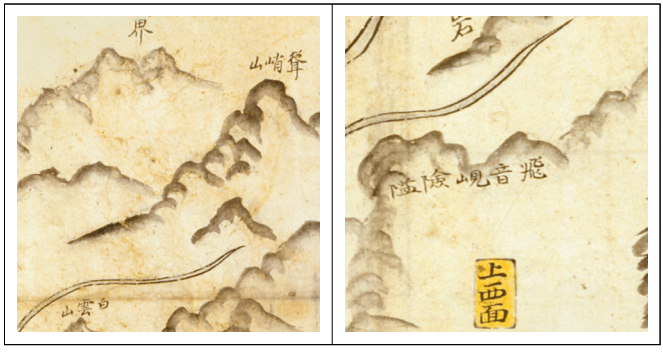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용초산’이 표기되지 않은 지도에서는 ‘용초산’과 ‘용천봉’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용초산’과 고개인 ‘비음현’, ‘용음현’이 같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는 대부분 ‘비음현’, ‘용음현’ 등이 원래의 위치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용초산’과 ‘용천봉’으로 나타나는 지도는 ‘용초산’이 지도에 표기되지 않으면 지도상에서 ‘용천봉’의 위치

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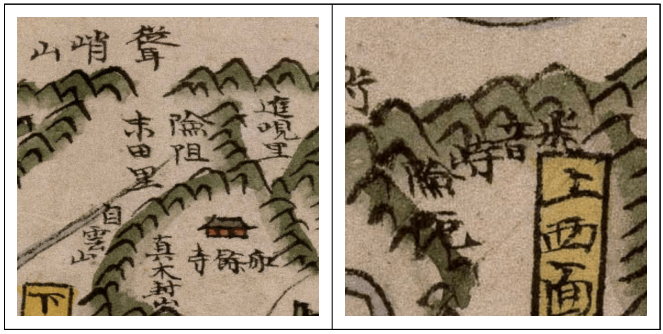
18세기 중엽의 ≪지승≫, ≪경주도회≫, ≪여지도≫(규장각본, 국립중앙도서관본), ≪해동지도≫와 19세기 초엽의 ≪각읍지도≫만이 '용초산(聳峭山)'과 '비음현(飛音峴), 비음치(飛音峙)'가 같이 나타난다. 이는 <자료 20> ~ <자료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20> ≪지승≫ (奎 15423) 18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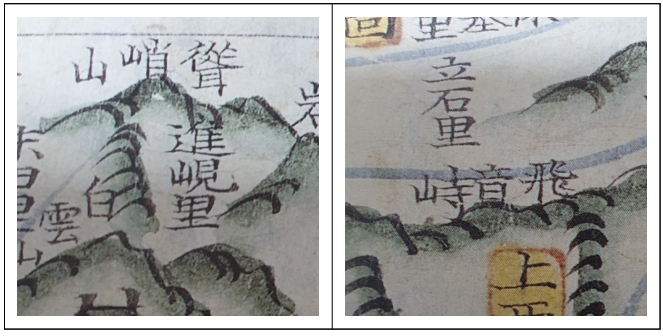


<자료 21> ≪경주도회좌통지도≫ 古4709-26 18세기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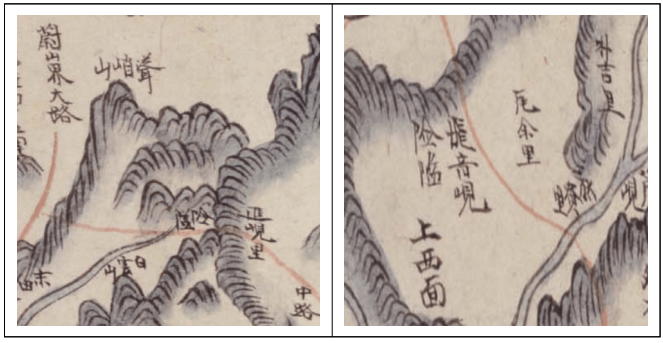
<자료 22> ≪여지도≫ 규장각 18세기 중엽

<자료 23> ≪여지도≫ 국립중앙도서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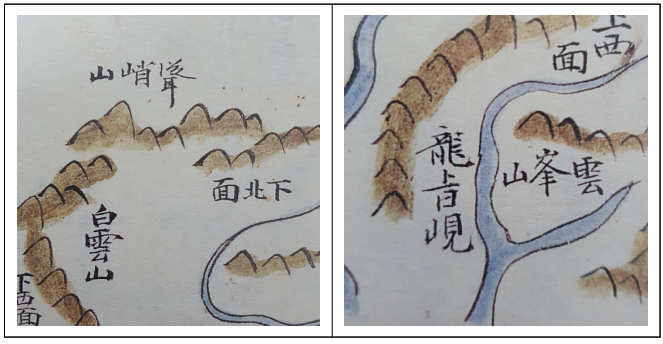


<자료 24> ≪각읍지도≫ 기장현

또한 '용초산'과 '용지현, 용음현'이 같이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중엽의 ≪해동지도≫[11], 19세기 초의 ≪동국여도≫, ≪지도초≫이다. 19세기 중엽의 ≪지도≫(국립중앙도서관본)는 '용초산'과 '용암현'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료 25> ~ <자료 28>에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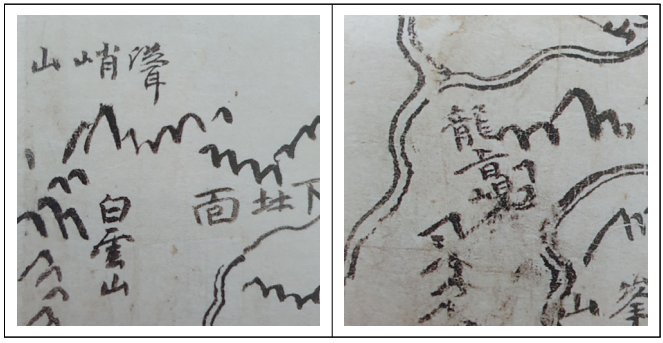


<자료 25> ≪해동지도≫ (古大470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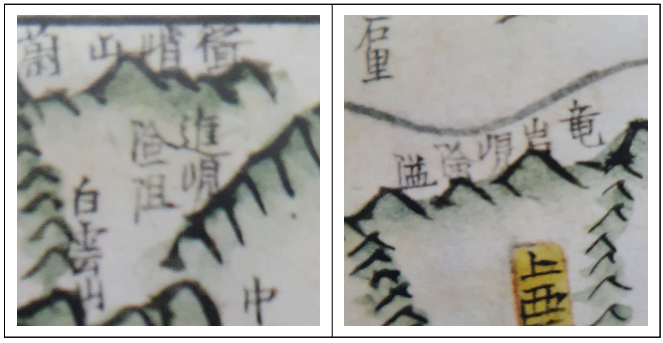


<자료 26> ≪동국여도≫

11) 18세기 중엽에 만든 『해동지도』에서는 기장현의 산천으로 탄산(炭山), 남산(南山), 운봉산(雲峯山), 백운산(白雲山), 장안산(長安山), 거물산(巨勿山), 앵림산(鶯林山), 선여산(船餘山) 등이 주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도상에는 일광산(日光山), 용초산(聳峭山), 불광산(佛光山), 철마산(鐵馬山), 거문산(巨門山), 무지산(武知山), 취봉(鷲峰), 삼각산(三角山) 등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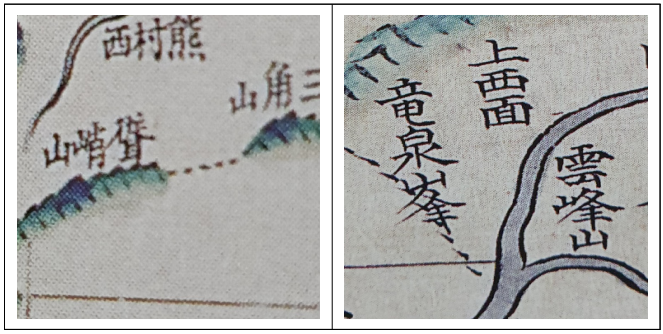


<자료 27> ≪지도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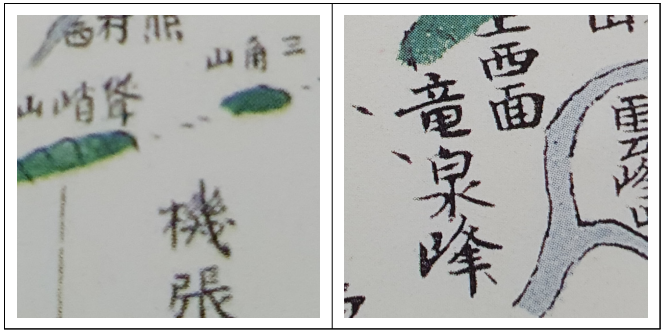


<자료 28> ≪지도≫ 중앙도서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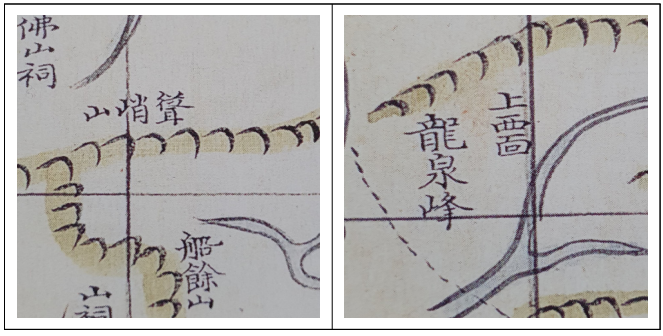
또, '용초산(聳峭山)'과 함께 '용천봉(龍泉峯)'으로 나타나는 지도는 <자료 29>, <자료 30>의 18세기 중엽의 ≪지도≫(장서각본, 고려대도서관본)과 <자료 31>의 18세기 말의 ≪해동여지도≫이다.



<자료 29> ≪지도≫ 장서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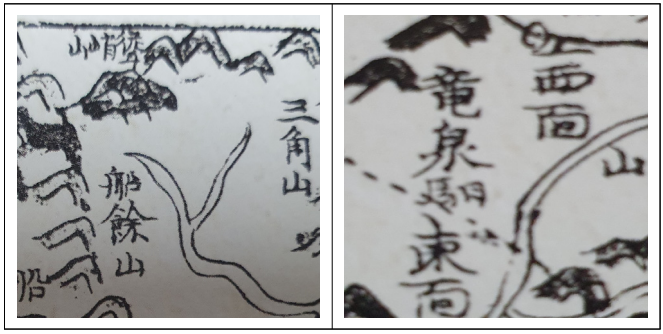


<자료 30> ≪지도≫ 고려대도서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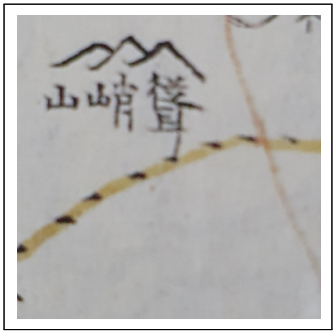
<자료 31> ≪해동여지도≫

이후 <자료 32>와 같이 19세기 초의 ≪조선도≫에서는 '용초산'과 함께 '용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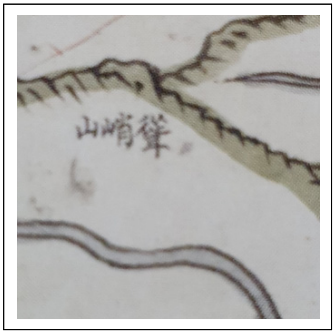


<자료 32> ≪조선도≫ (오사카부립도서관) 19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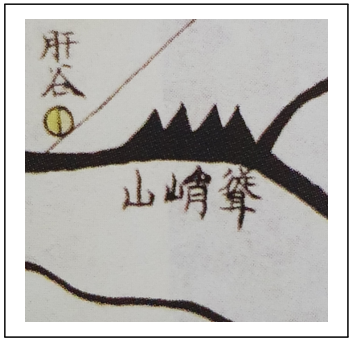
<자료 33>의 19세기 초 ≪청구도≫, <자료 34>의 19세기 중엽 ≪대동방여지도≫, <자료 35>의 19세기 말엽 ≪대동여지도≫에서는 '용초산'만이 나타나고 '용음현', '용천봉'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료 36>의 1832년에 간행된 ≪기장현읍지≫에서는 '용산(湧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용초산'을 '솟음산' 즉 '용산'으로 이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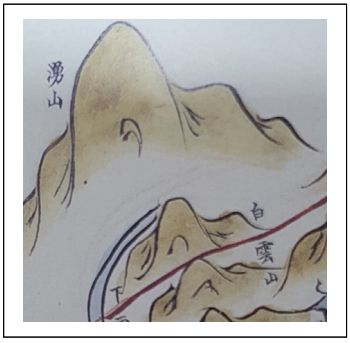


<자료 33> ≪청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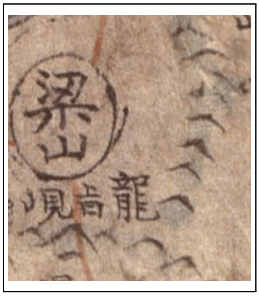
<자료 34> ≪대동방여전도≫





<자료 35> ≪대동여지도≫ 규장각　　<자료 36> ≪경상도읍지≫ 기장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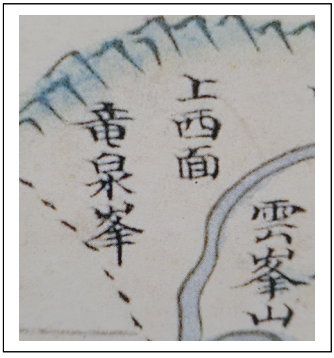
또한 전국지도에서 기장과 양산을 연결하는 고개이름으로 '용지현'만 표기되고 '용초산' 등의 산이름은 나타나지 않는 지도들이 있는데, 이는 [자료 37]의 18세기 중엽 ≪팔도지도≫, <자료 38>의 19세기 초엽 ≪동국여도≫, <자료 39>의 19세기 중엽 ≪좌해지도≫ 등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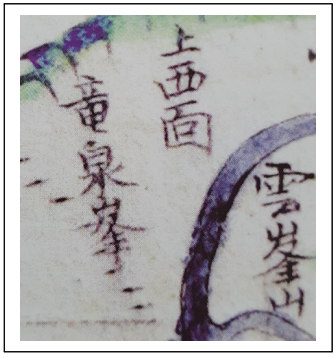
<자료 37> ≪팔도지도≫ (古軸 4709-48)　<자료 38> ≪동국여도≫ (古大 4790-50)　<자료 39> ≪좌해지도≫ (奎 12229)

마지막으로 <자료 40> ~ <자료 43>에서 보듯 18세기 중엽의 ≪조선지도≫(규16030), ≪동국지도3≫, ≪조선지도≫, 19세기 초엽의 ≪팔도

지도≫, 19세기 중엽의 ≪동여도≫, 19세기 말엽의 ≪여재촬요≫ 등에서는 '용초산(聳峭山)'은 사라지고 '용천봉(龍泉峯)'만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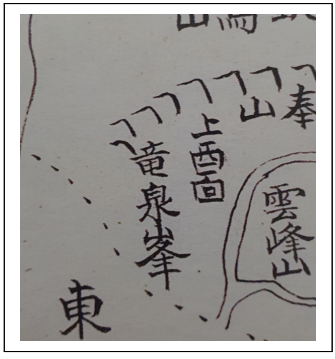


<자료 40> ≪조선지도≫



<자료 41> ≪팔도지도≫

<자료 42> ≪동여도(東輿圖)≫



<자료 43> ≪여재촬요≫

이처럼 '용초산', '용천봉' 등의 지도의 혼란은 후대 '용천산'으로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별 지명의 변화는 <표 2>와 같다.

<표 2> 용초산과 비음현의 지명 변천

고지도명		용초산	비음현	연대
지승(규15423)		聳峭山	飛音峴	18세기 중엽
조선지도(규16030)			龍泉峯	18세기 중엽
팔도지도(고4709-23)			龍峴	18세기 중엽
경주도회		聳峭山	飛音峴	18세기 중엽
여지도	규장각본	聳峭山	飛音峙	18세기 중엽
	중앙도서관본	聳峭山	龍音峴	
해동지도		聳峭山	龍音峴	18세기 중엽
동국지도3(중앙도서관)			龍泉峯	18세기 중엽
조선지도			龍泉峯	18세기 중엽
지도	장서각	聳峭山	龍泉峯	18세기 중엽
	고려대도서관	聳峭山	龍泉峯	18세기 중엽
해동여지도		聳峭山	龍泉峯	18세기 말
여지도(고4709-37)			龍脂	18세기 말
팔도지도	규10331		龍旨峴	18세기 말
	고축4709-48		龍旨峴	18세기 말
팔도지도			龍泉峯	19세기 초
각읍지도		聳峭山	飛音峙	19세기 초
조선도(오사카부립도서관)		聳峭山	龍泉	19세기 초
지도초		聳峭山	龍旨峴	19세기
해동지도(고4709-61)			龍旨峴	19세기 초
동국여도		聳峭山	龍旨峴	19세기 초
기장현읍지		湧山		1832년
청구도		聳峭山		1834년
좌해지도(규12229)			龍旨峴	1838년
지도(중앙도서관)		聳峭山	龍岩峴	19세기 중엽
동여도			龍泉峯	19세기 중엽
대동방여전도		聳峭山		19세기 중엽
대동여지도		聳峭山		19세기 말
여재촬요			龍泉峯	1895년

Ⅳ. 결론

자연 지명인 산명의 변화는 기존의 고지도, 읍지 자료, 근대 지명 기록, 근대 지도 등 다양한 문헌에 나타난 지명을 확인해야 정확한 변화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원래의 고유 지명을 확인하고 이러한 지명이 변화된 모습을 밝히는 것은 지명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명의 변화는 언어 내적인 원인이거나 언어 외적인 요인 등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한 인위적인 변개(變改)는 원래의 지명의 전통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지명이 일제 강점에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일제 강점기의 인위적인 지명 변화는 민족 전통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임이 틀림이 없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용천산'은 원래 '용초산(聳峭山)'에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용천산'이 해당 지역에서 '소심산, 솟음산'으로 부른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용초산'은 자의(字意)로 해석하면 '높이 솟아 오른 산'의 뜻이 되는데, 이는 '솟음산'이라는 고유 지명과 일치한다. '용초산'에서 '용천산'으로의 변화는 '날음재[飛音峴]'라는 지명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기장의 고지도의 모사 제작 과정과 관련이 있다. 기장 고지도를 분석하면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전국 지도의 제작이 성행할 때 저본이 되는 지도의 지명 표기의 불확실성이 다른 지도의 지명 오류로 나타난다. 용초산과 용천산의 변화는 기장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날음재' 즉, '비음현(飛音峴)'의 지명 표기와 관련되어 있다. '비음현'의 '비(飛)'는 일부 지도에서 '용(龍)'자의 약자와 혼란을 일으켜 '비음현(용음현)'이 '용음현(龍音峴)'으로 바뀌고, '비음현'의 '음(音)'를 '지(旨)'로 오해하여 '용지현(龍旨峴)'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또한 이렇게 바뀐 '용지현'은 본래의 위치를 혼동하게 만들어 '용현'으로 나타

나기도 하고, ‘용천’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부류칭의 혼란을 겪으면서 ‘용천봉’이라는 새로운 산을 만들어 낸다. 이 ‘용천봉’은 ‘용초산’과 위아래로 지도상에 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후대에 ‘용초산’이 지명에 사라지자 ‘용천봉’만이 지도에 남게 되었다.

고지도에서는 19세기 말 ≪여재촬요≫에서는 ‘용천봉(龍泉峯)’이 ‘비음현’ 위치에 나타나는데, 동시대의 『기장군읍지』(1871), 『경상남도 기장군가호안』(1904), 『조선지지자료』(1910),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1914년 일제가 발행한 『경상남도동래군지지조서』에 ‘용천산(湧天山)’으로 처음 나타난다. 이후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동래군지』(1937), 『대한민국행정구역편람』(1956) 등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1957년에 만들어진 『지방별지명조사철』에서 다시 ‘용천산(湧天山)’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이후 『구기장군향토지』(1992)에 ‘용천산(聳川山)’으로 표기되었다가 ≪두산백과≫(1996)에서는 ‘용천산(龍天山), 용천산(湧川山)’ 등으로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2001년에 간행된 『기장군지』에서도 ‘용천산(湧天山), 용천산(聳天山)’ 등으로 나타난다. 『부산지명총람』(2001)에서도 ‘용천산(湧天山)’으로 나타나며, 이는 ≪부산역사문화대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용천산(湧天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천산(湧天山)은 일제 강점기에 원래의 산명인 ‘용초산(聳峭山)’에서 바뀐 지명이 확실하다. 본 연구를 통해 아직 청산되지 못한 일제 강점기 지명을 정확한 고증을 통해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구기장군향토지편찬위원회, 『구기장군향토지』, 1992.
국토지리정보원, 「영남권 일본식 지명의 정비 방안 연구」, 2005.
국토지리정보원, 『한국 지리지』-경상편, 2005.
국토지리정보원, 『한국 지명 유래집』-경상편, 2011.
기장군지편찬위원회, 『기장군지』, 2001.
기장문화원, 『기장의 역사와 문화』, 1998.
김기혁, 『부산 고지도』, 부산광역시, 200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 지명 총람』 8권, 200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 마을4-기장군(Ⅱ) 장안읍, 일광·정관·철마면-』, 2009.
이근열, 「부산 기장 읍성 주변의 산명 변화 연구」, 『지명학』 29, 2018.
이근열, 「부산 기장군 달음산 연원과 변천 연구」, 『우리말연구』 20, 2020.
이종봉, 「조선후기 기장군의 면리제」, 『역사와 세계』 54, 2018.

2. 자료

『호구총수』(서울대규장각본, 1789)
『기장군읍지』(1871)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1904)
『조선지지자료』(1910)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경상남도 동래군 지지조서』(1914)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동래군지』(1937)
『대한민국행정구역편람』(1956)
『지방별지명조사철』(1957)

투고일 : 2020. 05. 25. **심사완료일 :** 2020. 06. 24. **게재확정일 :** 2020. 07. 08.

| Abstract |

A study on the Placename changes of ‘Yongcheon-san’ in Gijang of Busan

Lee, Geun-Yeol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Placename changes of ‘Yongcheon-san’ in Busan Gijang-gu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ongcheonsan(湧天山)’ is a change from the original ‘Yongchosan(聳峭山)’. This is because the name of ‘Sosimsan, Soseumsan’, which is the proper placename of ‘Yongcheon san’, is the same as the meaning of ‘Sky Climbing Mountain’ of ‘Yongchosan’.

Second, Second, the change of the name from ‘Yongchosan’ to ‘Yongcheonsan’ is related to the naming of ‘Nerumjae’, or ‘Biumhyeon(飛音峴)’, which is a pass from Gijang to Yangsan.

In other words, when the map maker misunderstood the Chinese characters of ‘Biumhyeon(飛音峴)’ and changed them to ‘Yongeumhyeon(龍音峴)’ or ‘Yongjihyeon(龍旨峴)’, this caused confusion in the original geographical names and changed them to ‘Yongcheonbong(龍泉峯)’.

Third, ‘Yongcheonbong’ is first identified in the ‘Biumhyeon' location in the ≪Yeojaechwaryo≫. This first appeared in 1914 as ‘Yongcheonsan(湧天山)’ in『Gyeongsangnamdo dongnaegun jijijoseo』, and it is written as it is in the 1957『Jibangbyeoljimyeongjosacheol(Regional Geographical Name Survey)』

Fourth, ‘Yongcheonsan(湧天山)’ was changed from the original name ‘Yongchosan(聳峭山)’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ey words : placename of Gijang, placename of Busan, Yongcheonsan (湧天山), Yongchosan (聳峭山), Yongeumhyeon (龍音峴), Nerumjae, Biumhyeon (飛音峴), Yongjihyeon (龍旨峴), Yongcheonbong (龍泉峯), 『Gyeongsangnamdo dongnaegun jijijoseo (慶尙南道東萊郡地誌詔書)』, 『Jibangbyeoljimyeongjosacheol(Regional Geographical Name Survey)』, placename of the Japanese occupation, old maps of Gijang.